



‘국민타자’ 이승엽의 귀환

이승엽이 8년간의 일본 프로야구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다. 그는 “아쉬움보다 시원하다.”고 입을 열었다. 사실 이승엽은 일본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었다. 지난 2010년 12월 1년간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고 오릭스 유니폼을 입었지만 발표와 달리 유효기간이 2년이었던 까닭이다. 한국행은 보장된 연봉을 포기한 새로운 도전인 셈. 그가 미소를 지으며 국내 리그로 복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승엽을 만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다.

01 일본 진출 8년 만에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귀국 당시처럼 아쉽다기보다 흥가분하다. 만족스러운 성적을 남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긴 여행을 마쳤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제는 국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설레면서도 조금 걱정이 된다.

02 언제부터 국내 복귀를 고려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음을 굳힌 건 지난해 후반기부터고, 사실 지바 롯

테 시절에도 복귀에 대한 마음은 있었다. 돌아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떠올려본 적도 있다.

03 복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터닝 포인트는 없었다. 지난 시즌을 치르며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국내 팬들의 뜨거운 열기도 느껴보고 싶었고, 솔직히 타지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

04 어떤 점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나.

오로지 승리만을 향해 달리는 시스템이다. 신분이 외국인이라는 점도 그러했고, 구단에 승리를 안겨야 하는 위치에서 좀처럼 마음을 강하게 다잡지 못했다. 오늘 못해도 '내일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신분 탓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걸려 있는 옵션도 적잖게 신경이 쓰였고, 나중에는 팀보다 개인 성적을 올리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까지 생기더라. 오릭스 구단에 많이 미안한 건 이 때문이다.

05 일본 생활을 마감하며 가장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한일 통산 500홈런, 2,000안타를 달성하지 못했다. 각각 17개와 30개가 부족하다. 부상만 없었다면 분명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06 왼손 엄지 부상으로 타격에 적잖게 애를 먹었는데.

그 발단은 2005년 지바롯데 스프링캠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시즌 뒤 가진 식사 자리에서 바비 발렌타인 감독이 "내년에는 수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좌익수를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외야 수비를 연습했다. 그런데 막상 찾은 스프링캠프에서 발렌타인 감독은 3주가 지나도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스프링캠프 마지막 날 연습 종료 30분을 남겨놓고 무작정 글러브를 끼고 외야로 나갔다.

07 그때 부상을 당한 건가

그렇다. 경험이 없어 모든 타구를 잡으려고 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공을 잡다 담장에 부딪혀 손을 접질렸는데 얼마나 세게 충돌했는지 고개까지 돌아가고 말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만 같았다.

08 팬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심은 건 아무래도 태극마크를 달고 뛴 2008 베이징올림픽이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의 승부사적인 모습일 것 같다.

나 역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일본과의 준결승에 나서기 전까지 성적은 22타수 3안타 타율 1할3푼6리에 머물렀다. 막판 홈런 두 방을 때리고 영웅 대접을 독차지한 것 같아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09 당시 금메달을 딴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는데.

그럴 생각은 없었다. 너무 기분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누가 계속 울더라. 나도 모르게 감정에 북받치고 말았다. 원래 감수성이 강한 편이다. **MEDI^YCHECK**

